

# 불황 장기화에 불확실성 확대...내년 지역경제도 '깜깜'

### 한은·캠코 광전본부 '광주지역 경제 현황과 전망' 공동세미나 자영업자·임금근로자 모두 주머니 사정 악화 내수 침체 지속 트럼프 2기 수출 악화·미분양주택 증가·청년층 유출 가속 전망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전남의 경제 현황 뿐만 아니라 내년 전망 역시 소비·건설투자·수출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경제침체 국면은 장기화 되는데다, 갑작스런 비상 계약과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미국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2기 행정부가 향후 광주·전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핵심 산업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분야의 타격과 함께 트럼프의 관세가 지역 기업들의 수출길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한은) 광주전남본부는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광주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최근 광주지역 경제 현황과 전망'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세미나에는 박원근 한은 광전본부장, 차상휘 캠코 광전본부장,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등 지역의 행정, 학계, 기업 등 각 분야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은 광전본부의 선진상 과장이 '광주·전남지역 경제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캠코 광전본부의 홍유미 차장은 '2025년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선 과장은 지역 경제 현황 및 전망에 앞서 "가계 소비심리 위축 및 취업자 수 감소 전환, 건설투자 감소 지속 등 현재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 과장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제 주요 이슈를 ▲소비 부진 ▲건설투자 감소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지역 수출 ▲청년층 유출 부진 내지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선 과장은 지역의 소비가 부진한 원인으로 가계 소득 정체, 높은 원리금상환 부담, 평균소비성향 하락 등을 꼽았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상용근로자의 소득을 보면 올해 지역 1인당 명목임금보다 소비자가 상승분이 더 커지면서, 실질임금소득이 광주는 전년 대비 0.8% 오르는 데 그쳤고, 전남은 0.6% 감소했다. 또 올 10월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대출금리가 수년째 상승해오면서,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고 가계 부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역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2.77%, 3.01%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2년(4.66%), 2023년(5.08%), 2024년 9



월 기준(4.91%) 등 최근 3년간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지역민들이 고통 및 경기침체로 인해 평균소비성향 역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고통 및 은퇴를 위한 예비적 저축으로, 30대 이하의 경우 취업 부진,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증가 등의 사유로 소비성향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 과장은 내년 소비자물가는 현재와 비슷한 2% 수준에서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도 낮아지면서 소비는

올해보다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건설투자에서도 전남지역은 지난 2022년 이후 민간부문 투자가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사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7.5%(2021년)→5.3%(2022년)→3.7%(2023년) 등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부채비율은 72.1%(2021년)→83.9%(2022년)→88.9%(2023년)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선 과장은 지역소재 건설사들의 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 주택시장 부진, 일감 감소, 건설 원가 상승 등을 꼽았다.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 내 미분양 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에서도.

내년 지역 건설투자의 경우 광주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전남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지역의 SOC예산이 지난해 1조2093억원에서 내년 7205억원으로 4888억원 줄어든 데다, 전남 아파트 분양물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수출에 대해서도 트럼프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대로 보편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이 둔화되고, 제조업 전 업종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 문제도 지역 청년들의 타지역 유출이 지속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만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내년에도 부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은 지속되고, 광주와 전남 모두 대학 졸업 인구가 선호 일자리 수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도.

박원근 한은 광전본부장은 "경제침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를 돌아보고 향후를 전망하며 유관기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HS효성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2024' 대기업 분야 대상

### 디자인·콘텐츠 등 18개 지표 평가

HS효성은 17일 "그룹 출범과 함께 공개한 HS 효성 홈페이지(사진)가 '웹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대기업분야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웹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하는 우수 웹 평가 시상식으로, 4000여명의 전문 평가위원이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평가는 비주얼 디자인, UI(User Interface)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지표를 평가해 각 분야별 수상작을 발표한다.

HS효성의 공식 홈페이지는 HS효성 로고에 담긴 별과 나무 이미지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목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나뭇가지가 뻗어 나가는 패턴 등 HS효성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으로 이끌겠다는 목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나뭇가지가 뻗어 나가는 패턴 등 HS효성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았다.

특히 HS효성의 상징인 '새벽별'을 반짝이게 표현하고, 스크롤을 하면 별이 HS효성의 심볼과 자연스럽게 연결됨으로써 HS효성의 CI와 HS효성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HS효성은 '마스터리아(Masteria)'로 명명된 CI와 비전을 공개하며 과학, 기술 및 집단 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평소 경영 철학인 '가치 경영'의 의미를 담은 '가치, 또 같이'를 HS효성의 첫 번째 슬로건으로 공식화했다. /김민식 기자 mskim@kwangju.co.kr



## 다운플레이스, 블록체인 인터넷진흥원장상

### 공공비축미 매입플랫폼 구축 공로

지역업체인 다운플레이스(주)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4 블록체인 진출주간' 시상식에서 블록체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다운플레이스(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비축미 매입플랫폼 구축으로, 농업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운플레이스(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블록체인 집중확산사업에 선정된 뒤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을 개발해 강진군의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

에서 QR 스캔 및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매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입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자 페이지와 연동해 매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으로 매입 절차의 무결성과 데이터 위변조 차단으로 검증 기간을 축소하고, 매입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을 절감시켜 주목을 받았다.

박주현 다운플레이스(주) 대표이사는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이 농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확산돼 쌀값 안정 및 농업 혁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고병일 광주은행장 연임 확정...“100년 은행 초석 놓겠다”

### 내년 12월까지 임기 1년 연장

고병일(사진) 광주은행장이 1년 더 광주은행을 이끌게 됐다. 지난 2년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속에 광주은행의 위상을 정립하며, 지역 상생 및 착 전락을 추진하면서 꾸준히 수도권 등 타 지역 공략에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은행의 모기업인 JB금융지주는 17일 주주총회를 열어 단독후보로 추천된 고병일 현 은행장의 임기 1년 연장을 결정했다.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차기 은행장을 최종 확정, 이날 오전 주주총회를 통해 고 은행장을 공식 선임했다.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5년 12월 말까지이다.

고 은행장은 지난 2023년 1월, 자행 출신으로



중은행과의 경쟁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광주시 1급고를 수성해내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 받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 주신 지역민과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

다"며 "항후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힘든 시기가 예상된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내실있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지역 향토 은행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난 1966년 광주시에서 태어나 금호고,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임방울대로지점장, 백운동지점장, 개인영업전략부장, 종합기획부장, 영업1본부 부부장, 경영기획본부 겸 자금시장본부 부부장을 지내고, 지난 2023년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11월 광주·전남 수출 전년비 20.5% 감소

### 수입도 줄어 5억5200만 달러 흑자

지난 1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20.5% 감소한 43억3500만 달러, 수입은 9.6% 감소한 37억83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52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11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누계기준 전

년 동기 대비 수출은 3.9%, 수입은 0.7%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는 120억300만 달러 흑자였다. 광주의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29.8% 감소한 9억7900만 달러, 수입은 42.7% 증가한 6억92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8700만 달러 흑자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26.7%), 가전제품(33.4%)이 증가했고, 수송장비(36.4%), 반도체(31.6%), 기계류(57.8%)는

감소했다. 반도체(54.0%), 고부(218.5%), 타이어(33.7%) 등의 수입은 대폭 증가했다.

전남의 11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7.3% 감소한 33억5600만 달러, 수입은 16.5% 감소한 30억9100만 달러를 보여 무역수지는 2억6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19.0%)가 증가했고, 석유제품(24.0%), 화장품(33.7%), 철강제품(1.4%), 기계류(28.0%)는 감소했다. 수입은 석탄(12.7%)·화공품(15.1%)이 증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 영농형 태양광 포럼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전남도,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의 개회사, 신민호 전남도의원, 강상구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등의 축사에 이어 김

근호 녹색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송금석 파루 부장이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례와 기술적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 좌장은 신민호 전남도의원이 맡았으며, 패

널로는 황규철 원장(녹색에너지연구원), 남세일 팀장(전남도 집적화단지팀), 남재우 이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송금석 부장(파루)이 참여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탄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6.81 (-32.16)
↓ 코스닥	694.47 (-4.06)
↓ 금리(국고채 3년)	2.621 (-0.068)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38.95 (+3.95)